



韩国语系列教材

韩国语阅读

林从纲 主编



大连理工大学出版社

韩国语阅读

主 编 林从纲
副主编 徐 俊 付 颖

大连理工大学出版社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语阅读 / 林从纲主编. — 大连 : 大连理工大学出版社, 2006. 6 (2006. 11 重印)
ISBN 7-5611-3211-5

I. 韩… II. 林… III. 朝鲜语—阅读教学—高等学校—教材 IV. H559.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6)第 062436 号

大连理工大学出版社出版

地址: 大连市软件园路 80 号 邮政编码: 116023

发行: 0411-84708842 传真: 0411-84701466 邮购: 0411-84703636

E-mail: dutp@dutp.cn URL: <http://www.dutp.cn>

大连理工印刷有限公司印刷 大连理工大学出版社发行

幅面尺寸: 185mm×260mm 印张: 10.75 字数: 259 千字

印数: 4001~8000

2006 年 6 月第 1 版

2006 年 11 月第 2 次印刷

责任编辑: 遼东敏

责任校对: 陈 灿

封面设计: 孙宝福

定 价: 18.00 元

韩国语系列教材编委会

主 任： 林从纲

副主任： 连积恩 何彤梅

委 员： 尹敬爱 白晶光

任晓丽 李玉华

李 民 蔡 芸

序 言

中韩建交以来,两国间的政治、经济、文化往来日益增多。对韩国语人才的需求不断扩大。为了适应这一需要,国内许多学校设立了韩国语专业。目前我国韩国语专业还是一个年轻的学科,韩国语教材匮乏一直是困扰韩国语教学的一个难题,同时也制约着韩国语学科的发展。虽然一些学校已经编纂出不少好的教材,但作为一个学校整体开发出版全套教材的尚为数不多。

大连外国语学院为适应韩国语教育事业的迅速发展,结合多年教学、科研经验,编写出这一套较为完整的适合教学和自学的韩国语教材。其中大部分由大连理工大学出版社出版。这些教材包括:

★专科段(低年级)

现代韩国语(一);现代韩国语(二);韩国语会话(上);韩国语会话(下);韩国语听力教程(上);韩国语听力教程(下);韩汉互译教程(一);韩国语语法与练习;韩国概况。

★本科段(高年级)

高级韩国语(上);高级韩国语(下);韩国语概论;韩国语阅读;对韩贸易实务;韩国文学史与文学选读;韩国语口译与听力;韩汉互译教程(二);新编韩国语词汇学。

此外,大连外国语学院还出版了如下教材和辞书:主要有《科技韩国语》(黑龙江人民出版社)、《实用韩国语会话》(辽宁民族出版社)、《外贸韩国语》(大连理工大学出版社)、《全国导游员等级考试系列教材(朝鲜语卷)》(旅游教育出版社)、《韩国日常生活中的敬语与礼节》(民族出版社)、《实用韩日英汉分类词典》(北京大学出版社)等。

本套教材主要有以下特点:

1. 系统性

从纵向上看,教材包括初级、中级、高级三部分,由浅入深,便于学习。从横向上看有基础课教材、听力、会话、语法、阅读写作等,体系完整。

2. 科学性

教材出自同一学校,因此编写时充分考虑到体系的完整性、科学性、语法解释的统一、各科目的衔接及教学工作的需要。

3. 新颖性

该教材编写时采用了韩国最新的语言资料,并做到图文并茂,特别注意语言的应用。这将会大大提高学习者的兴趣,收到事半功倍的学习效果。

本教材编写过程中借鉴了多种国内外著作、资料,在此谨向有关作者表示深深的谢意。

由于编者水平所限,难达初衷,恳请专家学者和广大读者给予批评指正。

教材编写委员会

2005年6月

前言



对于韩国语的学习者来说,大量涉猎各种类型的文章,增加词汇量,扩展知识面,对于进一步提高韩国语的水平是必不可少的,也是提高语言能力的行之有效的办法。

目前开设韩国语专业的学校,基本上都开设了韩国语阅读课程,但教材的滞后在一定程度上影响了这门课程的教学效果。有的教材内容比较陈旧,有的教材内容过于单一,有的甚至没有固定的教材可用。基于此,我们组织韩国语教学一线的教师编写了此书,希望能对韩国语的阅读教学尽绵薄之力,也希望在阅读教材的编写上能起到抛砖引玉的作用。

本书选材内容广泛,时效性强,并严格遵循“多视角,重应用”的原则。在内容上,我们选取了有关政治、经济、科技、社会、文化、语言、文学、地理等多方面的材料。在体裁上,兼顾说明文、议论文、小说、随笔、报道等多种类型的文章。在选材的视角上,既有反映韩国社会生活的内容,也有韩国人看中国、写中国的内容。在编写结构上,在每篇正文后都增加了一篇补充阅读材料,供读者学习。在练习题的编写上,我们结合不同文章的特点,参照国际韩国语能力测试的题型,依据教材内容编写设计习题,供读者参考、学习。希望能够对韩国语学习者在语言综合能力上的提高有所帮助。



在本书的附录中还有从近几年韩国国语等级考试(4, 5, 6级)的阅读部分考题中摘取的一些典型例题, 共3套, 供学习者自测。

本书在编写过程中得到了韩国专家许基先先生和本校同仁的大力支持和帮助, 在此谨向他们表示由衷的谢意。

由于编者水平所限, 书中难免有诸多不足之处, 敬请各位不吝赐教。

编 者

2006年5月

目 录

第一部分 언어 문화 语言文化

- 2 제 1 과 전통문화와 효 사상 传统文化与孝思想
보충 내용: 푸르다 绿
- 9 제 2 과 우리 민족의 풍습 我们民族的习俗
보충 내용: 감나무를 키우며 柿子树
- 16 제 3 과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声音语言与文字语言
보충 내용: 사랑하는 나의 연사들 1 可爱的演说家们
- 24 제 4 과 이야기의 표현과 이해 语言的表达与理解
보충 내용: 나의 사랑하는 생활 我喜爱的生活

第二部分 정치 경제 政治经济

- 32 제 5 과 한국 경제성장과 세계화 韩国的经济发展与全球化
보충 내용: 중국 경제 개혁의 방향 中国经济改革的方向
- 38 제 6 과 중국 中国
보충 내용: 한국 韩国
- 48 제 7 과 수출 전략 새로 짜야 한다 重新制定出口战略
보충 내용: 고유가로 아경제 양극화
由高油价引起的亚洲经济两极化现象
- 53 제 8 과 지역간 상호 협력 地区间的合作
보충 내용: 인재는 국력이다 人才就是国力

第三部分 자연 과학 自然科学

- 60 제 9 과 바다의 자원 海洋资源
보충 내용: 자원과 자원 문제 资源和资源问题
- 67 제 10 과 피부는 사람의 연령을 나타낸다 皮肤体现人的年龄
보충 내용: 고소득 1 위 직업은 기업 고위임원
高收入的理想职业——企业高层管理者

- 75 제 11과 인터넷 혁명과 우리의 선택 网络革命与我们的选择
보충 내용: 세상 바꾸는 인터넷 혁명
改变世界的网络革命

- 80 제 12과 블루투스 蓝牙技术
보충 내용: 물의 속성 水的属性

- 86 제 13과 24 절기 24 节气
보충 내용: 봄옷 타령 春装

第四部分 인문 사회 人文社会

- 94 제 14과 신문과 잡지의 구실 报纸与杂志的职能
보충 내용: 보부상 货郎

- 101 제 15과 성숙한 인간 成熟的人
보충 내용: 골무 顶针

- 107 제 16과 독서의 방법과 단계 读书的方法和阶段
보충 내용: 아름답게 산다는 것 活得精彩

- 112 제 17과 사회 안에서 한국인의 모임 社会生活中韩国人的聚会
보충 내용: 다도해 기행 多岛海纪行

- 118 제 18과 기사 报道
보충 내용: 기사 报道

- 127 종합 연습 문제 I 综合练习题 I

- 130 종합 연습 문제 II 综合练习题 II

- 133 한국어 능력 시험 연습 문제 I
韩国语能力测试模拟试题 I

- 141 한국어 능력 시험 연습 문제 II
韩国语能力测试模拟试题 II

- 149 한국어 능력 시험 연습 문제 III
韩国语能力测试模拟试题 III

157 부록 附录

- 157 본문 연습 문제 해답

- 158 종합 연습 문제 해답

- 159 한국어 능력 시험 연습 문제 정답

언어 문화 语言文化

第 一 部 分

제 1 과 전통문화와 효 사상 传统文化与孝思想

보충 내용 : 푸르다

绿

제 2 과 우리 민족의 풍습 我们的民族习俗

보충 내용 : 감나무를 키우며

柿子树

제 3 과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声音语言与文字语言

보충 내용 : 사랑하는 나의 연사들 1

可爱的演说家们

제 4 과 이야기의 표현과 이해 语言的表达与理解

보충 내용 : 나의 사랑하는 생활

我喜爱的生活

제 1 과 전통 문화와 효 사상

传统文化与孝思想

전통이란 한 집단이나 겨레의 역사 속에 하나로 이어져 내려오는 정신적인 맥락을 말한다.

전통은 인습과는 다르다. 인습이 새로운 역사를 이룩해 가는 과정에서 마땅히 버려야 할 찌꺼기라면 전통은 오히려 새 역사 창조에 없어서는 안 될 씨앗이요, 밑거름이다.

따라서 전통문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옛날의 문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 중에서 오늘에 되살릴 만한 가치 있는 문화적, 정치적 바탕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개화 이후 우리는 이 전통과 인습을 혼동한 나머지 옛 것은 모두 낡은 인습이라고 덮어놓고 천대하고 그 반면에 새로운 것, 특히 서구적인 것은 모두 훌륭한 것으로만 여겨 다투어 흉내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결과 우리는 낡은 인습을 타파하려다가 아름다운 전통마저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다. 오늘에 와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일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문화라는 말은 그것이 뜻하는 범위가 넓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 창조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문화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한다.

첫째는 용기문화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이 의식주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도구가 이에 포함된다. 이 문화는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가장 신속하게 전파되고 또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별로 큰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용기문화는 비록 적대관계에 있는 집단일지라도 편리하고 효율적인 것이면 곧 수용되게 마련이다. 옛날 미국대륙의 원주민들이 백인들과 싸울 때 그 백인들이 만든 총을 구해 가지고 그들에게 대항했던 것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총은 바로 그들의 적인 백인들의 용기문화의 소산이었다.

둘째는 규범문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신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생활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모든 법률, 제도, 예의, 도덕 같은 것이 이에 포함된다. 이것은 용기문화만큼 그렇게 빨리 전파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교류하면 수용이 가능하다. 현대 국가들이 각종 사회적 규범을 대개 비슷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 그 예라 하겠다.

셋째는 관념문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문화로서 그 민족 고유의 언어, 사상, 종교, 신앙, 철학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문화에는 그것을 지어낸 민족의 정서가 가장 진하게 깃들어 있어서 쉽게 다른 민족이 받아들여 동화시키기가 어렵고 또 민족의 노력에 따라서는 영원히 지켜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문화든지 끊임없이 갈고 닦지 않으면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스며들듯이 앞선 문화가 뒤진 문화에 흘러 들어 뒤진 문화를 흡수하게 마련이다. 특히 관념문화는 고도의 정신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문화에 흡수, 동화된다는 것은 곧 그 민족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찍이 청 제국을 세워 중원천하를 지배하던 만주족의 존재가 오늘날 사라지다싶이 된 예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예는 역사상에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에서 내노라 하며 큰 소리를 치고 사는 민족은 모두 자기네의 전통문화를 잘 다듬어 지켜온 민족들이다.

그러면 우리의 전통문화로서 오늘날 되살려 길이 지켜 나갈 만한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수많은 것이 있겠지만 부모를 섬기는 효 사상이 으뜸이 아닐까 생각한다.

효도란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제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도리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정성껏 봉양하고 정신세계에서는 그 뜻을 받들어 이어가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다. 따라서 효도는 아버지 생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 다 하도록 계속해야 한다.

유교사상의 주축이라 할 오륜의 첫째 번에서 <아버지와 자식의 친함>을 말하였고 또 유교에서는 이 효를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효 사상이라 하면 중국의 유교사상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우리의 효 사상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 더욱 다듬기고 특히 그 의식과 절차에 있어서 세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한국인이 지녀왔던 효 사상은 유교의 그것과는 좀 다르다.

일반적으로 중국인이 생각하는 효는 유교에서 비롯된 규범문화로서 그것이 곧 생활의식이요, 도덕이다. 그리고 일본인이 생각하는 효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자기를 낳고 키워준 부모의 은공에 보답한다는 일종의 보은 사상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에 있어서 효는 단순한 도덕적 생활규범이나 부모에게서 받은 은혜를 되갚는다는 의리감정을 훨씬 넘어서 관념문화로서의 종교와 신앙으로 고수되어 왔다. 오늘날까지도 같은 동양문화권속에 있으면서도 부모와 조상을 섬기는 마음이 이웃 중국사람이나 일본사람보다 우리 한국인에게 훨씬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감정은 지금도 생활의 밑바닥에 뿌리깊게 깔려 있다.

예를 들면, 부모나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의 감정에서도 그 한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인은 제사를 유교정신에 좇아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생활규범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부모생전에 미처 다하지 못한 자식의 도리를 이어서 행하는 것이라고 행각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 그 외형적인 격식이나 절차는 비록 유교식을 좇아 중국인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깊은 속마음은 중국인과 다르다.

우리는 조상이나 부모의 영혼이 제사 날이 되면 직접 찾아오셔서 차려놓은 음식을 잡수신다고 생각한다. 또 조상의 영혼은 자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자, 즉 신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제사를 정성껏 잘 지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는 일종의 기복 신앙의 형태를 띠고 발전해 왔다.

돌아가신 조상을 향한 이러한 절대감정은 바로 살아 계시는 부모에 대한 생각의 연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비단 제사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남다른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날 우리 조상들이 생일을 기념하던 풍속에서 예를 들어보자.

생일이 한 생명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 같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생일 맞는 당사자의 출생을 기리는 뜻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생명을 낳아서 키워주신 아버지의 로고에 감사하는 뜻을 하나 더 얹어서 지켜왔다. 그래서 생일 아침이면 생일을 맞는 당사자는 새 옷을 입고 옷깃을 여미고 부모님께 먼저 큰 절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그날의 행사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인의 효 사상은 그것이 단순한 유교의 생활규범만도 아니고 불교적인 보은사상만도 아닌, 우리의 고유한 조상숭배사상에다가 유교의 옷을 입히고 불교의 상을 더해서 높은 수준의 관념문화로 가꾼 오랜 전통문화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이처럼 부모를 섬기고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은 어질고 착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불효하는 사람은 어질지 못한 사람이요, 어질지 못한 사람은 착할 수가 없다. 착하지 못한 것은 악이니 악은 곧 인간성의 반역이기 때문에 주위사람들로부터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는 불효를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겨 불효자식은 마을에서 살 수 없도록 쫓아내는 풍속을 지녀왔다.

개화기 이후 우리는 줄곧 서구문명을 모범으로 삼고 거기에 맞추어 따라가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서구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듯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랫동안 노력을 경주한 끝에 고도의 산업화 사회를 이룩하여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부산물로서 마땅히 주인이요, 주체이어야 할 인간이 오히려 한낱 기계의 부속품이나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 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에 몹시 당황하고 있다. 인간답게 살아 보려고 이룩한 물질문명이 오히려 인간에게서 따뜻한 사람과 정을 빼앗아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서구사회는 동양의 사상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동양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인에게 강하게 남아 있는 부모와 노인과 조상을 섬기는 정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장래뿐만 아니라 차차 전 인류문화의 밝은 빛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새 단어

인습	(名)	因习, 惯例	찌꺼기	(名)	渣子, 残渣
씨앗	(名)	种子	밑거름	(名)	基肥
천대하다	(动)	轻视, 蔑视	흉내 내다	(词组)	仿效, 模仿
여념	(名)	余念, 杂念	타파하다	(动)	打破
대항하다	(动)	对抗	지어내다	(动)	做出来, 编造, 捏造
깃들다	(动)	浸透, 渗入, 包含	갈다	(动)	磨
스며들다	(动)	浸透, 渗入	섬기다	(动)	侍奉, 奉养
으뜸	(名)	第一, 最好	다듬기다	(动)	修整
깔리다	(动)	被铺垫	절차	(名)	顺序, 步骤
옷깃	(名)	衣领	여미다	(动)	扣好
어질다	(形)	仁慈, 善良	반역	(名)	叛逆, 背叛
줄곧	(副)	一直	누리다	(动)	享受
부속품	(名)	附属品			

연습 문제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전통은 인습과 어떻게 다릅니까?
2. 우리는 전통과 인습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3. 효도란 무엇입니까?
4. 용기 문화, 규범 문화, 관념 문화는 어떻게 다릅니까?
5.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이 효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합니까?

보충 내용

푸르다 绿

- 편견 없는 문화를 위하여 -

아이들이 부르는 ‘오월의 노래’ 소리가 들려 온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강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

우리는 무심히 듣고 있지만 한국말을 아는 외국인들이라면 꽤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도 벌판도 다 같이 푸르다고 하기 때문이다. 원래 ‘푸르다’는 우리말 자체가 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의 경우에는 푸른빛이나 초록빛이나 그게 그것이다.

하지만 영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푸른색과 초록색은 아주 다른 색깔로 혼용하는 법이 없다. 벌판을 보고 하늘처럼 푸르다고 했다가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그 색깔에 대한 정서도 우리와는 아주 다르다. 푸른빛이라고 하면 우리는 금시 젊음과 희망을 연상한다. 젊음이는 청년이요, 희망은 청운의 꿈이다. 그러나 서양문화권에서의 청색은 오히려 슬프고 침울하고 무기력한 것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 먼데이(blue Monday)’라고 하면 희망이 찬 월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을 의미하는 말이다. 주말에 놀다 월요일에 출근하면 그 기분이 침체하고 맥이 빠진다. 그런 기분을 색채로 나타내면 푸른색이 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화가 코코슈카의 대표작 「바람의 신부」를 보면 그 상징성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그림은 마라 부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것인데 처음에는 빨간빛으로 칠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그림이 끝나기도 전에 그 녀와의 사랑이 시들어 버리고 금이 가게 되자 그는 그 그림의 색깔을 바꿔 푸른빛으로 칠해 버렸다. 그러니까 사랑은 붉은 빛이요, 실연은 푸른 빛이다.

그 화가의 경우만이 아니다. 가난하고 외롭던 시절, 어두운 색조로 우울한 삶을 화폭에 표현했던 피카소의 초기 그림을 흔히 청색기라고 부르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푸른색과 초록색의 그 차이 때문에 같은 교통 신호등을 달아 놓고도 우리는 푸른 신호

등이라고 하고 서양 사람들은 녹색 신호등이라고 부른다.

“어디로 가라는 청색 신호나”

모더니스트 시인으로 알려져 있던 김광균 씨의 시에도 분명히 붉은 신호등과 반대의 신호등은 푸른색이었다. 서구 문명의 영향으로 요즘에는 한국인들도 초록색과 푸른색을 구분해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치원 아이에게 파란 불이 나오면 길을 건너라고 했더니 온종일 신호등 쳐다보고 길을 건너지 않았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분명히 그 아이의 눈에는 주황색, 붉은색, 그리고 초록색 신호등은 켜지는데 어머니가 보고 건너라던 푸른색 신호등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린 카드’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미국이나 서구 국가에서는 젊음과 희망을 나타내는 색채는 푸른색이 아니라 초록색이다. 그리고 그런 초록빛을 이념의 색채로 상징화한 것이 오아시스를 생명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슬람 국가들이다. 그래서 탈냉전 후 자주 듣게 되는 것이 ‘붉은색에서 초록색으로’라는 구호이다. 구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의 위협이 이슬람 문화권의 원리주의로 바뀐 시대 상황을 색채 상징으로 나타낸 말이다. 그러나 이슬람의 이념인 초록색도 정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병을 연상케 하는 불길한 빛으로 변하고 만다. 인도네시아의 일부에서는 그것이 숯재 금단의 색깔로 여겨져서 광고 간판조차 규제되기도 한다.

문화에 따라서 색깔은 이렇게 달라진다. 분절하는 방식도 표현하는 감정도 모두 다르다. 문자 그대로 이 지구의 문화는 각양 각색인 것이다. 죽음을 나타내는 상복 하나만 보아도 결코 검은색이 만국 공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한국처럼 흰빛이고, 브라질에서는 자색, 멕시코에서는 황색, 상아 해안에서는 짙은 붉은색이 된다. 이런 경우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고 할 수는 없다. 문화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하나의 자로 잴 수 없다. 만약 하늘도 들판도 모두 푸르다고 하는 한국인을 비웃는 서양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푸른빛과 쪽빛을 구분하지 못하는 서양 사람들을 비웃어야 할 것이다.

문화의 상대주의, 그리고 그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 데서 히틀러의 그 만행이 저질러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한다. 지금 이 지구촌에는 종교와 인종의 갈등으로 50 개 가까운 나라들이 폭력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기 때문이다.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월의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 온다. 그래, 마음껏 노래 부르거라. 하늘도 들판도 모두 푸르다고 노래하거라. 편견 없는 문화 속에서 이제 푸르게 잘 자라거라.